

‘올림픽 특수 끝·대기업 수주 독식’ 건설업 2중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계약액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공사계약액은 총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1~2분기 기록한 1조2,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감소했으며 수도권·광역시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적은 액수다.

다만 현장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

도내 본사 둔 업체 공사계약액 뜻 반면 현장소재별 계약액 전국 최고 화전건설 등 지역업체 하도급 수준

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7월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공사건의 발주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 같은 계약액 급증이 호재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는 입장이다. 실제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건의 경우 경남의 두산중공업과 경북의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만큼 도내 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권혁진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조사분석실장은 “평창올림픽 호재를 이어갈 요인이 부재한 데다 대규모 공사건 대다수를 타 지역업체가 도맡는 통에 지역 건설업체가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 2018.12.26(수)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고성향토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24일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인철 강원도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은 장학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건협 강원도회, '2018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성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권역별로 '2018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 강릉, 원주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기준 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건설업 실태조사 동향 및 등록 기준 설명이 있었다.